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애 <39>

학승이 물었다.
 “부처님과 조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부처님과 조사가 아닌 사람이야.”
 학승이 물었다.
 “어째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에게 ‘부처나 조사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어떠한 것인가?”
 학승이 물었다.
 “그럼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름이 있다면 곧 불조중생(佛祖衆生)이야.”
 학승이 말했다.
 “다만 그렇게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마침내 자네가 가는 곳과 달라졌다.”

問 祖佛近不得底是什麼人
 師云 不是祖佛
 學云 爭奈近不得何
 師云 向你道不是祖佛不是衆生不是物得麼
 學云 是什麼
 師云 若有名字即是祖佛衆生也
 學云 不可只與麼去也
 師云 卒未與你去在

부처와 조사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부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부처이다. 조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조사이다. 부처는 부처를 알아보고 조사는 조사를 알아보는 법이다. 따라서 부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이고 조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사이다. 경지가 같지 않으면 절대 가갈 수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세계의 한계이다.
 그러면 불조와 가깝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건도 아닌 보통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명 부처의 후손이고 부처의 심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중생이 아니고 부처이다. 그러나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딱히 현재 부처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부처와 중생의 중간쯤 되는 어떤 물건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부득이 이름을 붙이자면 불조중생(佛祖衆生)이다. 부처이기도 하고 중생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학승은 불조(佛祖)와 중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생(衆生)을 동시에 쓰는 이름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학승에게 “마침내 자네가 알고 있는 불교와 내가 알고 있는 불교가 달라졌다”라고 하면서 말을 마쳤다. 도대체 누구의 불교가 옳은 것인가? 그것은 독자들이 판단하기 바란다.
 학승이 물었다.
 “경전에 보면 색을 따라 변하는 마니주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무엇이 마니주의 본래 색입니까?”
 조주 스님은 학승의 이름을 불렀다. 학승이 대답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학승이 가까이 다가가서 또 물었다.
 “무엇이 마니주의 본래 색입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자, 또 색을 따라 가거라.”

問 承教有言 隨色摩尼珠 如何是本色
 師召僧名
 僧應諾

머물지 않는 마음이 행복의 지름길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부처

머물지 않는 마음이 행복의 지름길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부처
 師云 過者邊來 僧便過 如何是本色 師云 且隨色走
 마니주가 노란색을 보고 노랗게 변하고 붉은 색을 보고 붉게 변하려면 자기의 색이 없어야 한다. 투명해야 무슨 색을 보아도 그 색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서 마니주는 사람의 본성에 비유하고 있다. 조주 스님은 마니주의 본색은 무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답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마니주는 본래 색이 없다. 파란색을 보면 파랗게 비추고 검은색을 보면 검게 비출 뿐이다. 그대의 본성도 그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금강경>에 무주(無住) 사상이 있다. 머물지 말라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분노, 슬픔, 자만, 사상, 보시 등 그 어떤 정신적 현상이나 언어적 개념에도 머물지 말라는 말이다. 무념이나 무심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주 선사나 마니주 설법도 마찬가지이다. 마

음이 어느 곳 하나에 정해져 있으면 반드시 그로 인해 괴로움이 몰려온다. 마음이 그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상관없이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어야지 끈적지게 집착할 바는 못 된다.
 학승이 물었다.
 “평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역시 교화를 받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그 문 앞을 지나가지 않아.”
 학승이 말했다.
 “그러면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음, 좋은 평상심이군.”
 問 平常心底人 還受教化也無
 師云 我不歷他門戶
 學云 與麼則莫沉卻那邊人麼
 師云 大好平常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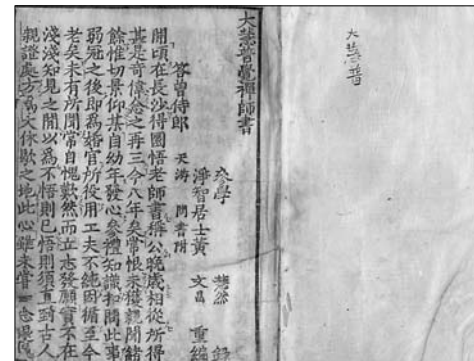
조주 스님은 평상심을 늑대나 여우와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분노, 기쁨, 희열, 욕망, 사랑, 미움 등 중생의 전형적인 평상심이 평상심이다. 중생은 본래 깨끗하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상심이 나온다. 선사는 나날이 무념무심으로 살아간다. 선사의 평상심은 무념(無念)이고 중생의 평상심은 유념(有念)이다. 선사는 중생의 평상심에 근접하지 않는다. 근접했다면 그는 진실을 깨달은 자가 아니다.
 들집승과 같은 마음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도 교화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끝치 아픈 질문이다. 그러나 선사는 평상심에도 관심이 없고 남이 제도를 발견 말걸 도무지 관심이 없다. 왜냐? 중생은 언젠가 운명적으로 스스로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생의 본성은 부처이다. 본성이 부처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된다. 그가 이미 부처인데 누가 누구를 제도 할단 말인가? 교화에 대해서 선사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
 선사의 유일한 관심은 그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다. 누구든 즉시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이나 중생의 마음을 쓰면 중생이다.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구해주려는 마음을 쓴다면 선사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왜냐하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이다.
 ■부불선원 선원장

김호귀 교수의 선어록 해제 20 대혜선사어록

새로운 간화선법 제시

<대혜어록>은 복승 말기부터 남송 초기에 걸쳐 살았던 임제종 양기파의 법맥에 속하는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어록 30권으로 <대정신수대장경> 제47권에 수록돼 있다. 그 내용은 경산, 육왕산, 강서 운문암, 북주 양서암, 천주의 소개 운문암 등에서 설했던 상당법어, 탐법, 운거수좌요법불어록, 실중기연, 송고, 계승, 찬불초, 보살, 법어, 서간 등에 대한 기록이다.
 사법제자 온문이 집대성한 1171년에 상진(上進)하고 1172년에 대장경의 편입을 허락받았다. 입장(入藏) 이전의 각 권별로 여러 제자들에게 의해 정리된 것으로는 <대혜보각선사주경산능인선원어록 참학도결목 정지거사황문창 중편>이 있다.
 한편 대혜에게는 일종의 공안집으로서 제자를 제접(提接)·일깨우고 가르침하는 방편의 기능으로 삼은 <정법안장> 6권이 전한다. 한편 명판대장경에 전하는 것으로 1183년에 조영이 편찬한 <대혜보각선사사연보>가 있어 대혜의 전기에 대한 좋은 자료가 돼 있다.
 당나라 때에 백화년만하던 선풍이 마침내 오대를 지나 송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생기발달한 선기를 상실하면서 고착화돼 더 이상 창조적인 선풍을 전개하지 못하고 이전의 사상과 선기를 답습해 나아가는 풍토에 젖어들었다.
 이때에 이전의 순수하고 발랄한 선풍을 다시금 진작시키는 데에 노력했던 사람이 곧 대혜종고였다.
 그는 선이 즉생활적이고 자신의 혈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기능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스스로 직접 사회 속에 뛰어들어 많은 사대부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직접 생활 속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몸소 생활을 선수행의 도량을 바꾸어 나아갔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문제 내지 정치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행자로서의 한몫을 하면서 가열찬 삶을 경주했다. 때문에 이에 연루돼 17년에 걸쳐 유배생활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 선 수행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당시 선문 풍토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전시대의 답습과 모방에 빠져 있는 것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그것이 새로운 간화선법의 주장으로 나타났다. 간화선의 출현은 선수행과 깨침에 대한 선종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대혜는 당나라 때부터 계속된 무사선의 오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하고, 당시 선풍의 폐해인 불병(佛病)·법병(法病)·중생병(衆生病)을 간접적인 원인으로 간주했다.
 불병은 선교방편을 지니지 못하고서 방편 그대로

를 만능으로 간주하는 잘못과 범부행위까지도 일상 생활 그대로가 깨침이라 해 무사갑리(無事甲裏)에 떨어지는 잘못을 가리킨다. 법병은 언설을 통한 갖가지 병통으로서 곧 언어상·문자상·지해분별상에 떨어져 있는 것과 방편의 가르침을 방편인 줄 모르고 실재로 간주하는 잘못을 말한다. 중생병은 중생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으로서 분별사식과 불신의 후과 미혹우치를 말한다.
 곧 대혜가 간화선법을 제시한 것은 이전의 무사선의 오류에 빠져있던 선종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제시였다. 그래서 대혜가 제시한 화두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화두에 예비적인 방편기능과 본질적인 정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첫째는 수단과 도구적인 기능으로서 방편수행의 기능이다. 이 경우에 화두는 깨침이 목표는 아니다. 깨침을 목표로 삼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예비기능일 뿐이다. 이 경우 화두는 깨침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화두일념을 유도하는 행위로서 작용한다.
 산란심과 혼침 속에서는 정신집중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순간적인 정신집중이 가능하다해도 그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란심과 혼침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서 화두를 필요로 할 뿐이다.
 둘째는 정신집중과 깨침의 주체로서 정수행의 기능이다. 화두 자체를 참구하는 행위가 그대로 깨침이 화두를 벗어 나가지 않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두가 깨침의 또 다른 양상으로서 참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두참구는 더 이상 깨침을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깨침을 참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화두의 참구행위에서 화두일념이 돼야 한다.
 화두일념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자와 참구되는 화두가 분리돼 있지 않는 경지이다. 그래서 이 경우의 화두는 전제로서의 화두로서 이전까지의 방편적인 화두의 속성을 상실한다. 화두가 그대로 목표가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두와 참구행위와 깨침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그 연결고리가 다름 아닌 참구자의 참구행위이다. 여기에서 참구자에 의한 참구행위가 유일하게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화두일념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화두를 깨치는 것은 화두를 참구하는 자의 주체적인 몫이다.
 화두 자체가 저절로 화두참구자에게 깨침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참구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화두는 화두이고 깨침은 깨침이며 화두참구자는 화두참구자일 뿐이다.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문화재청이 10월 28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 대혜보각선사서(보물 제1662호). 이 책은 중국 송나라의 대혜종고(大慧宗杲)가 편지글을 모은 것으로 조선시대 이래 강원 학습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천하대도통으로 천년을 사는 서성의 진법으로 생로병사의 비밀을 그 누구도 핵심을 모르는 비법과 인간에게 모든병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지구와 인간이 탄생된 이후 최초공개하는 속명통 대법회

천지공사로 지구축이 변경되어 물과 불과 이름모를 소두우족군으로 천지개혁이 오고 있다. 그대를 초대하여 이 시대에 성불한 도인만이 살아 남아 중생을 구하는 시대가 도래 되고 있다. 다같이 도통 군자되시고 인류 스승 되소서!

- ◆경신도통이란 멀지 않은 영적부모인 것이고 인간의 수행으로는 물에 붙은 신을 떼지 못하고 자손으로 내려 가지 않고 자기대에서만 부리는 도법을 받는 날이 천년에 한번드는 경신년 2010년 10월 10일 10시 10분 경신일 신시에 오십토로 성불 받는 날이다.
- ◆특별 금년 경신년은 해도금묘 대운의 해이므로 결혼과 가정과 직장 및 수행자들에게 운이 막히고 사업마장, 결혼마장 되는 것은 자기 조상해탈 못한 영가들의 방해이므로 본인의 상생의 죄업을 벗고 악한운과 일체고역을 소멸하는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부러려는 운을 본인에게만 열어주고 선행대운으로 자식에게 안가는 행운을 열어 운명 2010년 10월 10일을 바꾸는 것이며 2010년 10월 10일은 경신년 경신일 10시 10분 천년에 한번 돌아오는 후천 법도해이므로 이 기도로 하늘 땅 모든 섭신을 받아 지금까지는 과거 지나간 일들만 말하는 것을 미래에 닥쳐오는 운명과 길흉과 철학 점술예언 예측하는 속명통 수행으로 천지와 복덕이 합하고 일월과 밝음이 합하고 귀신과 길흉을 합하고 사시 오행이 합하고 육감음향과 세월 일사가 합하는 성스러운 대운을 받아 합신 마장을 소멸 하는날이므로 하늘과 땅은 사사로움이 없는 경신수행자에게 이 법을 주위 자시에 보람하는 법을 얻는 천장지법인 것이고 관심법으로 많이 배워도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운명과 건강 출세 신비의 명리철학 오행철학 성명철학 풍수철학 동양철학을 팔십공 도천명으로서지나날만 맞추던것을 즉시 도통 말문이 열리는 도법을 성불받아 일체를 관리하는 도통 군자로 사단법인 자격증을 얻어 철학원이 포교원을 경영할 수 있는 대운을 받는 속명통 대법회

하늘과 땅에 비법인 우담바라 천년에 한번피는 2010년 10월 10일 10시 10분 오십토로 원시반분하는 선천법도는 가고 후천법도가 시작되므로 지금까지는 사주팔자를 명리나 철학으로 보는 것이 모두 끝나는 것은 좌와 오양이 축과 미향으로 지축이 바뀌고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진법사구계를 지계 수복자에 의하여 가지고 나오는 자가 달라미륵인 것이며 여래법후로 오백세라고 하신 것이 금년에 천년이자 작 되므로 천년을 사는 즉 우담바라의법 천년성의 법이 뜬 것이다. 부처님께서나 예수님 탄생과 성인들이 태어나는 것은 법에서 시작되며 금강경 진법 사구계 핵심인 진통 다영결은 모든 잠신들을 항복받는 원방각 해인 도법의 갖대는 금년 무진통 기도에 만천하에 비법을 공개하여 바른불교의 법도와 유훈선이 하나 되는 것이다. 1999년 3월 28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원문을 한문과 한글로 번역하여 계룡산 연천봉을 대자암경신철야 법회에서 공개 한자에 의하여 금강경 진법 사구계로 지구촌 이그러진 종교의 법도와 공서가 바로되는 부처님 당시도 상근가를 중생들이 못알아 듣기에 하근기인 법소유상이 개시히 망이요 약견제상이 즉전 여래나라 하신것은 중생들이 너무나 무지에서 온것이고 이제는 너무나없이 천상천하유아독존인 생명의 심인것이다.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부산 금정구 정전3층 경문사 도량
 상담전화: 051)635-3110 / 010-8533-1601

- 입제: 양력 2010년 11월 5일(음 9월 29일 금요일)(해시)
- 해제: 양력 2010년 11월 6일(음 10월 1일 토요일)(해시)

02)821-6622, 821-7767, 010-3239-3110
 ●농협 029-01-167866 객테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옷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 461번, 153번으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입구 하차. 동작구 약사회 골목. 관음정사 별관

사단법인 대한불교달마조계종 교육원 천지공사용조미륵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중 추 본산 테일합장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부산중무원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매매가 마음대로 안되는 분.
- 어떤 병이든지, 어떤 사업이건 전화상담만으로 속 시원히 알수 있음.

김중된 기술, 오랜 경력, 성직자의 양심으로 교육, 퇴마하는 도량 “**청봉사**” 모든 검색창에서 “**천소스님**”이나 “**청봉사**”를 클릭하세요.

퇴마사 최면사 교육
정규교육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청 봉사 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 대표전화 051)362-0666 / 상담 및 예약 010-5656-3915